

<2010년 9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것인데 완성한 것으로 보는 자는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2. 주님이 다 왔다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
3.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실력대로 목표물을 정하고 간다. 역시 어리석이다.
4. 인간 스스로 하면 유한한 세계다. 주님과 함께 하면 무한한 세계다.
5. 육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와 주님의 생각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다.
6. 인간은 토끼 사냥, 주님은 호랑이 사냥이다.